

웨스턴 스타일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한수연[†]·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Hybrid Reflected on Western Style Fashion

Sooyeon Hahn[†] and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5. 11. 접수일 : 2009. 7. 17. 수정완료일 : 2009. 8. 10.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western style in fashion and to contemplate the hybrid tendency reflected on western style, thereby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tendency of western style. For such purposes, this study first examines western style historically, in order to analyze hybrid tendency reflected on western style, and conduct a case study by analyzing photographic materials of prêt-à-porter collection since 1980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hybrid tendency reflected on western style are modification and fusion of regional culture, adaptation and composition of subcultures, and appropriation of sexual minority culture. (1) Modification and fusion of regional culture is expressed in ethnic items and patterns of embroidery, mixing Mexican and Spanish, American Indian and American cultural references. (2) Adaptation and composition of subcultures emphasize traditional or vintage western style by mixing characteristics of western and other subcultures. (3) Appropriation of sexual minority culture is expressed in rhinestone chaps and fetish corset, glitter rodeo suit, reminiscent of drag or queer cultural reference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s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fashion design.

Key words: western style(웨스턴 스타일),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 특성), hybrid(하이브리드).

I. 서론

최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권의 형성과 확인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은 학계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도나 종류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모든 사회가 다문화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다문화적인 특성이 존재해 왔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가능성이 구현되면서 그 하이브리드적인 경향에 대한 성찰적인 재조명이 제기되고 있다.

웨스턴 스타일은 미국을 상징하는 스타일로서, 서부 개척의 프론티어 정신을 대표하는 카우보이들의 이미지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에서 확산되어 왔으나 그 기원에 있어서 다문화적인 배경이 존재하며, 이에 글로벌적인 하이브리드 경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위문화 스타일의 하나로서,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의 융합되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적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웨스턴 스타일에 관한 기존

[†] 교신저자 E-mail : ppsyhahn@hanmail.net

연구는 그 사적 고찰¹⁾이나 부분적인 아이টে에 대한 고찰²⁾에 그치거나 또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일부로서의 특성³⁾만을 다루어온 바, 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에 관한 논의 역시, 전반적인 현대패션 또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현상 파악이나 페미니즘, 해체주의, 다원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향과 관련하여 주로 제시된 바⁴⁾, 개별적인 스타일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표출된 웨스턴 스타일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적으로 고찰하여 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뒤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온 웨스턴 스타일의 개념과 의미 파악과 더불어 이를 통해 패션에 표출된 현대인의 스타일을 성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웨스턴 스타일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적으로 고찰한다.
2. 웨스턴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경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3.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의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사적 고찰은 19세기 이후부터 다루었으며,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의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로 하였다.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의 특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1980년대 이후 컬렉션 사진자료 중심의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웨스턴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경향

1. 웨스턴 스타일의 개념

1) 웨스턴 스타일의 개념

복식에서 웨스턴(Western)은 아메리카 서부의 카우보이들이나 개척자들이 착용한 복장을 총칭한다⁵⁾. Takamura는 웨스턴 스타일이 할리우드 영화 속 카우보이들에 의해 입혀지던 것이며, 광의로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스타일도 포함한다고 하였다⁶⁾. 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스타일의 등장은 30년대, 4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하여금 시골 생활에의 향수에 젖게 하였고, 웨스턴 스타일은 험난한 역경을 이겨낸 카우보이의 승리와 결단력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변형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을 제공하였다. 또한, 장미선은 웨스턴 스타일이 미국 서부에서 볼 수 있었던 스타일에 남부 시골의 스타일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야외활동의 인기로 캐주얼웨어가 카우보이 룩으로 채택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⁷⁾.

웨스턴 스타일은 스텡슨 모자와 카우보이 부츠, 데님 진의 세 아이টে의 웨스턴 웨어(McDowell, 1997)를 바탕으로 한다⁸⁾. 스텡슨 모자는 원래 그 영향을

1) Holly George-Warren and Michelle Freedman, *How the West was Worn*, (NY: Harry N. Abrams, Inc., 2001).

2) Jennifer June, *Cowboy Boots*, (NY: Universe, 2007).

3) Ted Polhemus, *Street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NY: Thames and Hudson, 1994); Amy de la Haye & Cathie Dingwell,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1996).

4) 최호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로벌, 구조적 하이브리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경란,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최혜정, 임영자,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복식* 51권 2호 (2001), pp. 149-167. 그 외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음.

5)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편,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1999), p. 466;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1998), 2nd ed., p. 609; Georgina O'Hara Callan,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8), p. 73;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 1995), Rev. ed., p. 959.

6) Zeshu Takamura,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 Sha, 1997), p. 68.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26에서 재인용.

7) 장미선,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50-51.

받은 멕시코 목동들의 모자와는 달리 폭이 좁고 수수한 형태로서, 1865년 John B. Stetson에 의해 만들어져 현재까지 미국 남성들에게 페티시 아이템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카우보이 부츠는 승마용 부츠의 일종으로, 원래는 타이트하고 평범한 형태였으나 1920년대 이후 서부 영화에서 종아리 길이의 가죽 세공과 스티치로 화려해지면서 장식적, 색채적이고 키치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⁹⁾.

진은 원래 서부 개척시대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미국적인 기질을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1853년 Levi Strauss의 천막용 캔버스로 만든 바지로부터 시작하여, 인디고 염색과 구리 리벳으로 오늘날 블루진의 원형이 되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서부 영화 장르가 할리우드에서 형성되면서 진은 미국 개척시대 서부의 상징물로 가시화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서부 목장들이 휴가용으로 개방되고 부유한 미국인들이 여가 중 카우보이 스타일을 즐기게 되면서, 진은 육체 노동자들의 복식이 아닌 여가용 패션으로서 쉬크한 멋을 포함하게 되었다. 1935년 4월 Levi's는 “진정한 웨스턴 쉬크는 카우보이들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광고를 *Vogue*지에 싣기도 했다¹⁰⁾. 2차 대전 당시 진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남녀 불문하고 전사 노동자들, 군인 등의 작업

복이 되었으며, 전후 반문화적인 미국 청년의 상징, 70년대에는 가장 미국적인 패션으로서 대중 스타로부터 보수적인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널리 입혀지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소재 개발과 가공법, 구성법의 연구로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를 지향하는 진 브랜드들이 탄생하여 미국적 라이프스타일의 재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은 가장 미국적인 아이콘으로서 야성적이고도 쉬크한 웨스턴 스타일을 구성한다.

이외에도 웨스턴 스타일에 관련된 아이템으로서 웨스턴 셔츠는 파이핑의 요크선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프론트 셔츠이며, 체크 문양의 먼 셔츠인 럼버 셔츠는 1920년경 캐나다 숲에서 일하던 벌목꾼들을 위한 작업복으로 등장한 것이다¹¹⁾. 밴대너(bandanna)는 18세기 미국 기마 순찰대원과 카우보이들에게 제공된 다기능의 순면 스카프로서 입을 막거나 땀을 닦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원래 인도에서 유래된 이 정방형의 천은 실크로 만들어지다가 18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전래되었으며, 19세기 초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의 넥타이로 알려졌다. 수공업자나 마부, 노점상인들이 밴대너를 스카프 대신 착용하였다¹²⁾. 가우초(gaucha) 팬츠는 남미 카우보이의 중

<표 1> 웨스턴 스타일의 특징

구분		웨스턴 스타일의 특징
디자인 요소	형	승마용으로 기능적인 형태, 또는 꼭 맞는 바지 디테일로서 프린징, 파이핑, 자수, 스티치
	색	인디고 블루, 블랙, 화이트, 밝은 체크 문양
	소재	면, 데님, 가죽, 울 문양은 체크, 플레이드, 남미풍 밝은 패턴
아이템	진, 웨스턴 셔츠, 럼버 셔츠, 가우초 팬츠, 폰초, 볼레로 재킷 등	
액세서리	스텝슨 모자, 카우보이 부츠, 밴대너, 금속 버클의 벨트, 캡스, 홀스터, 장갑, 끈 타이 등	

8)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e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pp. 107-109.

9) Angela Pattison and Nigel Cawthorne, *A Century of Shoes: Icons of Style in the 20th Century*, (Edison, NJ: Chartwell, 1997), pp. 108-110.

10) Beverly Gordon, “American Denim: Blue Jeans and Their Multiple Layers of Meaning,” in Cunningham & Lab, p. 31. 송수원, “영국, 미국 패션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270-271에서 재인용.

11) 잉글리드 로벡, 베아테 슈미트,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역 (서울: 예경, 2001), pp. 68-69.

12) *Ibid.*, pp. 110-111.

아리 길이 디바이디드 스커트에서 응용한 바지이며, 챔프(chaps)는 승마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 폰초는 담요와 비슷하게 사각형 또는 장방형의 울 직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남미에서 발생되고 밝은 패턴과 디자인이 특징이다¹³⁾. 세심하게 수공된 버클의 벨트, 디테일로서의 프린징은 웨스턴 스타일의 특징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웨스턴 스타일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웨스턴 스타일의 사적 고찰

웨스턴 스타일은 19세기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미국에서의 목축은 1521년 가축들을 몰고 북부 아메리카 서부로 온 스페니시로부터 비롯되었고, 미국 남서부와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목축업을 해온 것은 그들의 후손이었다. 앵글로-텍사스 인들이 멕시코 란체로(ranchero) 스타일로 가축업을 한 것은 1840년대 후반이었으며, 아메리칸 카우보이들이 입은 전형적인 의복은 상당부분 북부 아메리카의 스페니시 스타일에서 기원하였다. 스페인 혹은 히스패닉 아메리카에서 기원한 의상들이 채택되어 다른 기후와 다른 문화적 요구 즉 노동의 성격과 전통에 적합하도록 변용되었다¹⁴⁾.

19세기 중반 서부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바뀌면서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으로의 이주가 촉진되었고, 서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화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서부의 풍경은 그것을 길들이려는 초인간적 노력으로 여겨졌고, 대중적 저널리즘과 예술가들은 야생의 신비한 지역으로 서부를 그려내고, 카우보이는 터프한 영웅으로 다루었다. 새시와 팬츠 스타일, 짧은 재킷 등 멕시코 Vaquero 복장의 영향을 받은 카우보이가 소설 속에 나타났으며, 버펄로 빌(Buffalo Bill)의 와일드 웨스트 쇼(Wild West Show: 1883~1916)는 카우보이 이미지를 전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전형적인 카우보이 의상인 샷 건 챔프(chaps)는 멕시코

목동 vaquero가 입었던 chaperjos에 기초한 것이었고, 부츠와 박차는 vaquero와 카우보이가 모두 사용한 것이었다¹⁵⁾. 웨스턴 스타일 슈트는 1910년경부터 이브닝에어로서 입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승마에 용이하도록 고안된 플랩 포켓과 스냅 여밈 같은 실용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포켓 가장자리의 자수처럼 순수한 장식적 요소들을 포함한 것이다¹⁶⁾.

서부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부터 1930년대까지 서부의 개척정신을 찬양하며 미국의 건국 신화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초기에는 버펄로 빌의 쇼에서 차용한 환상적인 로데오 의복이나 멕시코 스타일이 나타났으나,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사실적인 카우보이 복식인 평범한 셔츠와 데님 팬츠, 베스트, 적당한 크기의 모자가 사용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중반, 할리우드의 B급 영화와 서사극에서 진 오토리(Gene Autry)와 로이 로저스(Roy Rogers)는 당대 카우보이 스타일을 대표하는 배우들이었다.

하위문화 스타일로서의 웨스턴은 194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의복은 실용적이고 질기면서도 장식적인 것이 특징이다. 셔츠는 강도가 높은 이중의 요크선과 포켓이 특징이며, 여기에 장식 상침으로 강조된다¹⁷⁾. 웨스턴 스타일은 다른 스트리트 스타일과는 달리 도시를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930년대와 40년대 도시 사람들이 스타일과 이데올로기적 영감의 자원으로서 전원생활의 신화적 유산에 이끌려 이를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시 거주민들이 전원의 생활방식을 그리워했고, 카우보이 스타일이 동부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미국 남부가 원하던 정체성과 역사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역경을 무릅쓰는 카우보이의 결단과 성공이 미국인들이 선호하던 상징으로 여겨졌다¹⁸⁾.

한편, 컨트리 앤 웨스턴 뮤직은 국제적으로 대중화된 미국적 음악 장르로서, 1920년대 미국 남부 시

13) Georgina O'Hara Callan, op. cit., p. 109, p. 190.

14) 송수원, op. cit., pp. 242-243에서 재인용.

15) David Dary, *Cowboy Culture: A Saga of Five Centuries*, (Lawrence, KA: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p. 45. Ibid., pp. 243-244에서 재인용.

16)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ell,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1996), pp. 16-17.

17) Ibid., pp. 16-17.

18) Ted Polhemus, op. cit., p. 23.


골을 출발점으로 한다¹⁹⁾. 다른 어떤 음악 장르보다도 카우보이와 카우걸의 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중에게 어필한 분야이다²⁰⁾. 흰 모자에 테일러드된 웨스턴 복장이나 카우보이 모자, 프린지 달린 프록, 사슴 가죽 베스트는 1930년대 중반 컨트리 앤 웨스턴 뮤지션들의 복장이었다. 이후 컨트리 앤 웨스턴 뮤지션들의 스타일은 보다 성장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헝크 윌리엄스(Hank Williams)의 옷을 만들었던 누디 콘(Nudie Cohn)은 내슈빌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일러였는데, 벨벳 칼라의 하나 또는 두 개 단추를 단 긴 길이의 재킷이 유명하다. 누디 콘은 라인스톤 카우보이 록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는 카우보이 스타일에 모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화려한 복장이었다. 이 록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최근의 달리 파튼, 엘튼 존 등의 뮤지션들에게 영감이 지속되었다²¹⁾. 이는 단순성과 진정성을 추구하던 컨트리 앤 웨스턴과는 달리 호화스러운 이미지였다.

2차 대전 당시 서부 신화는 미국이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한 나라”로서 뭉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우보이가 19세기 서부를 지배하였듯이 20세기에는 미국에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다. 1947년

시어즈 로벅(Sears & Roebuck)이 빨간 더블 스티치와 구리 리벳을 박은 카우보이 스타일 데님 덩가리와 데님 재킷의 카탈로그를 발행한 이후로 데님 진즈는 가장 독특한 하위문화 스타일적 의상이 되었다. 이는 포멀 웨어에서 캐주얼로의 이동에 전기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중류계급 사람들이 노동계급 스타일을 채택함으로써 최초의 중요한 하향 전파의 예를 이루었고, 카우보이 신화는 최초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노동계급 영웅을 만든 것이다²²⁾.

웨스턴 스타일의 카우보이 패션은 60년대 말과 70년대에 유행하여²³⁾, 카우보이 셔츠와 카우보이 부츠, 청바지가 대표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컨트리 록의 부흥 이후 카우보이 이미지가 록큰롤 가수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²⁴⁾. 립버 셔츠는 시골스러운 매력으로 미국의 컨트리 가수들이 선호하였고, 전통주의와 군중과의 친밀감으로 어필하는 록 그룹들에 의해 즐겨 입혀지고 있다²⁵⁾.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웨스턴 스타일의 아이템인 밴대너는 청소년들에 의해 목에 두르는 천으로부터 머리를 장식하는 천으로 바뀌었으며, 해적과 같은 방식으로 뒤통수에 잡아당겨 묶고 스케이트나 그 외 거리

<표 2> 웨스턴 스타일의 사적 고찰

시기	주요인물	디자이너 브랜드	영향	패션의 특징	예시	미적 특성
19세기 중반 ~ 20세기 초	Buffalo Bill Cody, Theodore Roosevelt	J.B.Stetson	Wild West Show, 소설 및 문학	아이콘으로서의 카우보이 형성, 보안관, 카우보이, 인디언 역할에 맞는 무대의상, 멕시코 및 스페니시 영향, 캘리포니아 문화 프린징 장식의 가죽 수트, 화려한 셔츠, 자수, 레이스 트리밍, 은단추, 팬츠는 울, 사슴가죽이나 악어가죽, 물개가죽, 문양은 스페인풍, 식물, 새, 소, 꽃 등, 스텝슨 모자, 가죽 안장, 부츠, 실크 스카프		가장성, 이국성, 양성성, 차용성

19) 이정엽, *대중음악사전*, 장호연 역 (서울: 한나래, 1999), pp. 302-303.

20) Holly George-Warren and Michelle Freedman, op. cit., p. 104.

21) Joshua Sims, *Rock Fashion*, (London: Omnibus Press, 1999), p. 45.





22) Ted Polhemus, op. cit., p. 24.

23) Georgina O'Hara Callan, op. cit., p. 73.

24) 장미선, op. cit., pp. 50-51.

25) 잉글리드 로벡, 베아테 슈미트, op. cit., pp. 68-69.

<표 2> 계속

시기	주요인물	디자이너 브랜드	영향	패션의 특징	예시	미적 특성
1910년대 ~ 1930년대 초	Tom Mix, Buck Jones	Levi's, Lee, Pendelton Woolen Mills	초기 무성 서부 영화 (흑백)	영화 속 카우보이 스타일, 버펄로 빌 스타일의 차용, 화려한 로데오 복장 및 데님 오버롤		가장성, 이국성
				베스트, 멕시코 스타일 부츠에 스티치 장식, 웨스턴 셔츠, 울 플란넬 셔츠, 오버롤 데님, 셔츠에는 포인티드 요크, 화살무늬 스티치, 실크 밴대너, 실버 버클, 꽃문양 자수, 흰 모자, 수공의 부츠에 박차		
1930년대 말 ~ 1940년대	John Wayne, Roy Rogers, Gene Autry	Nathan Turk, Rodeo Ben, Wrangler Jeans	영화 퍼레이드 웨스턴 뮤직	사실적인 카우보이 스타일, 커피스의 데님에 베스트, 평범한 셔츠, 밴대너, 적당한 크기의 모자		가장성, 하위 문화성, 미국 문화성, 양성성
				웨스턴 셔츠는 스냅단추, 파이핑, 소피스티케이트한 더블단추 웨스턴 수트, 여성용은 승마용 팬츠에 가죽 프린지, 로데오 의상은 광택있는 새틴, 타이트, 동유럽풍 자수(꽃, 새 등), 프린징의 레이어, 부츠는 색채적이고 화려함, 여성과 매칭 아웃핏, 자수 모티프는 상징적		
1950년대	Hank Williams, Lefty Frizzell, Elvis Presley	Nudie Cohn, Turk	웨스턴 뮤직	화려하고 환상적인 라인스톤 카우보이 스타일, 테마 있는 자수		가장성, 양성성, 미국 문화성
				라펠, 요크에 수놓은 웨스턴 셔츠, 옆선 따라 수놓고 모조 보석 장식한 팬츠, 라인스톤, 스팅글, 긴 프린징, 깃털, 광택 있는 소재에 현란한 장식, 자수의 모티프는 다양(독수리, 꽃, 기타, 마차, 선인장, 스타들의 얼굴 등), 상, 하의 연결, 남녀 연결된 스타일, 엘비스의 골드 라메 수트		
1960년대 ~ 1970년대	Willie Nelson, Bob Dylan, Keith Richards	Nudie Cohn, Turk, Manuel	록큰롤,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거칠고 지저분한 Scruffy Cowboy Look, 아메리칸 인디언 풍 가미		하위 문화성, 미국 문화성, 이국성
				무법자 풍의 지저분한 데님, 머리에 밴대너, 블랙 셔츠와 블루 진, 히피 풍 머리, 아메리칸 인디언 풍의 비드, 프린지, 깃털, 자수, 폰초, 전원풍, 데님 bib-front 셔츠, 블랙 카우보이 모자, 핀스트라이프의 웨이스트 코트, 자수 문양은 해골, 장미, 자기 이니셜 등		

스포츠를 즐길 때 착용되었다. 이는 페이지리 무늬와 같은 인종 특유의 모티브로 프린트되어 머리장식용 스카프나 헤어밴드로서 애용되고 있다²⁶⁾.

〈표 2〉는 웨스턴 스타일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미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2. 웨스턴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경향

1) 웨스턴 스타일의 바탕으로서의 아메리카니즘과 하이브리드 경향

웨스턴 스타일은 미국의 용광로(melting-pot)적인 성격을 체현하며, 그 스타일로 스페인, 아메리칸 인디언, 멕시코, 동유럽 등 많은 문화를 변형하고 현재의 패션 감각에 맞게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여준다²⁷⁾.

원래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으로 대표되는 미국 문화 정체성에는 다문화주의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이 존재해왔다. 아메리카니즘은 미국이 식민지 개척과 독립 전쟁, 이민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 속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면서 공유해온 미국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믿음이다. 미국인들은 혈연을 같이 하는 조상이나 같은 땅에서 오래 살아온 역사가 없으면서도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미국 사회를 움직여온 아메리카니즘이라는 이념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²⁸⁾.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서²⁹⁾,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교과과정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가능성이 구현된 경우로서, 이 용어는 미국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지배적인 유럽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거나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지속된 백인 남성의 지배를 종결짓고, 여태까지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집단의 정체성, 특히 여성과 유색 인종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³⁰⁾.

2) 웨스턴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경향

사적 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웨스턴 스타일은 초기부터 다문화적인 하이브리드 경향을 지녀왔다. 우선 지역적인 부분을 살펴 볼 때, 멕시코 목동들의 복식에서 끌어온 남미와 스페인 영향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져와 미국 서부에 맞게 변용하였으며, 이국적인 요소와 미국 특유의 요소가 융합되었다. 특히 카우보이 부츠와 셔츠에 나타나는 자수와 스티치의 장식적 요소들은 문양의 모티프와 패턴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거치면서 웨스턴 수트는 동유럽 풍의 자수와 장식을 더하게 되는데, 이는 그 주요 디자이너인 터크(Nathan Turk), 로데오 벤(Rodeo Ben), 누디 콘이 모두 동유럽 출신 이민으로서 그 지역의 테일러링과 자수 기법을 교육받은 바창의적 영감의 자원으로서 동유럽을 참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¹⁾.

하위문화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은 1940년대에 도시 사람들이 전원생활의 신화적 유산에 이끌리면서 형성되어 휴가지의 농장(dude ranch)이나 퍼레이드 등에 도입되었다. 1950년대 이후 Elvis Presley 등의 록큰롤 음악과 연결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의 엘비스 점프수트에까지 영향을 주면서³²⁾ 디스코, 록커빌리, 웨스턴 하위문화의 혼성을 보여준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히피 문화와 연결되면서 혼성적인 경향으로 Janis Joplin, Bob Dylan, The Grateful Dead,

26) Ibid., pp. 110-111.

27) Holly George-Warren and Michelle Freedman, op. cit., p. 227.

28) 세이무어 마틴 립셋,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강정인 외 역 (서울: 후마니타스, 2006), p. 33.

29) 이재윤,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한중일 전통 문화코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23-24.

30) 정상준,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 20권 (1997), p. 334.

31) Holly George-Warren and Michelle Freedman, op. cit., p. 88.

32) Tommy Hilfinger, *Rock Style: How Fashion Moves to Music*, (NY: Universe, 1999), p. 20.

Rolling Stones의 Keith Richards 등의 뮤지션들과 그 팬들의 복식에 웨스턴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는 계층으로서의 하위문화뿐 아니라 아메리칸 인디언 풍의 장식 및 디테일과 병용되면서 지역문화의 융합으로서의 하이브리드와도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웨스턴 스타일은 형성기부터 역할을 위한 무대의상과 영화의상으로서 가장을 위한 복식이었으며, 로데오 기수로서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나타내었다. 전통적인 일반 남성복식과는 달리 화려한 색채와 트리밍, 꽃문양, 신체의 선을 드러내는 라인과 소재를 선택하였다. 한편, 카우걸들은 카우보이들과 유사하거나 매칭되는 복식과 기능적인 팬츠를 착용하여 정형적인 젠더 정체성과는 일치되지 않는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젠더 문화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표 2>의 사적 고찰에서 나타난 웨스턴 스타일의 미적 특성 중에서, 미국 문화성과 이국성은 특히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의 특성과 연결되며, 하위문화성은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으로, 그리고 가장성, 차용성, 양성성은 하위문화성과 함께 성적 소수 문화의 차용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III.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1. 1980년대 이후의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은 지배적인 트렌드는 아니지만 디자인 영감으로서 20세기 후반 주기적으로 주류 패션에 나타나며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³³⁾. 만화 영화 <토이 스토리(Toy Story)>(1995)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2005), <늑대와 함께 춤을(Dances with Wolves)>(1990) 등은 웨스턴 스타일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어반 카우보이 스타일은 도회풍의 카우보이 스타일로 시티 웨스턴 룩이라고도 하며, 전통적인 서부 남자의 복장을 거리에서 입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1979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시티 웨스턴 룩은 재킷에 웨스턴 풍의 요크나 포켓 같은 디테일을 도입하거나 웨스턴 셔츠나 웨스턴 부츠를 코디네이트시키고 웨스턴 타이나 텐겔런 해트를 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올드 웨스턴 룩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컨트리 룩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현대에 되살린 패션이다³⁴⁾.

특히 랄프 로렌은 카우보이 스타일에서 받은 영감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혼합하여 만들어낸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는데, 그의 브랜드는 미국 남녀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잠재해 있는 가슴 속 깊은 곳의 과거에 대한 동경이 그의 “와일드 웨스트” 감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서부 대초원에 이주해 살던 전통적인 느낌을 자기 작품에 반영시키고 있다³⁵⁾.

Christian Lacroix는 1986년 쿠티르 컬렉션에서 러플의 페티코트와 망아지 모양 프린트 스커트를 선보여 웨스턴 스타일을 유럽인들이 받아들인 예가 되었다. 1992년과 1993년 컬렉션에서는 Jean Paul Gaultier, Thierry Mugler, Rifat Ozbek, Gianni Versace 등이 웨스턴 스타일을 테마로 선택하였다. 1992년 S/S 컬렉션에서 베르사체는 “이 세상에서 웨스턴 스타일만큼 미국적인 것도 없다. 와일드 웨스트의 부흥은 미국이 그 뿌리를 찾으려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며, 유럽 또한 서부 신화의 신선함에 매료된다. 그리고 광활한 공간과 전통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그 룩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1998/1999년 Cynthia Rowley는 웨스턴 스타일에 영향받은 흰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Marc Jacobs는 웨스턴 스타일의 새틴 셔츠 드레스를 제시한 바 있다³⁶⁾.

21세기 들어 컬렉션에 나타난 웨스턴 스타일을 살펴보면, 남성복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2003년 S/S의 수공예품 벨트, 2004 S/S 시즌에는 웨스턴 벨트 등 웨스턴 액세서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³⁷⁾. 2004 S/S 시즌에는 정제된 로맨틱 빈티지가 유행하면서 진 브랜

33) Holly George-Warren and Michelle Freedman, op. cit., pp. 204-210.

34) <http://www.samsungdesign.net/Databank/Encyclopedias/FashionDictionary/search.asp?chk=&keyword=웨스턴&block=0&page=2&cnt=10>

35) 남기묘, 박혜원, “랄프로렌 디자인 브랜드에 표현된 아메리칸 스타일 연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5권 (2001), pp. 109-123.

36) *Vogue*, May 1992, p. 131을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ell, op. cit., p. 17에서 재인용.

37)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296>

드에서 웨스턴 디테일의 셔츠가 소개되기도 하였다³⁸⁾. 2005년 F/W 시즌에는 여성복에서 웨스턴 스타일의 부츠가 대표적인 유행 아이템으로 사용되면서 특히 디테일이 많고 루즈한 핏의 중간 길이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³⁹⁾, 2006년 F/W까지 스트리트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블랙과 브라운이 강세를 보였다.

2006년 S/S DSquared²는 스카게티 웨스턴 영화와 TV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세기 전환기의 데님과 스웨이드, 덩가리와 조드퍼스, 웨스턴 벨트, 그리고 1940년대풍 드레스와 로테오 셔츠 디테일의 애플리케이션 장식의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으며, 2007년 A/W 시즌 Christian Lacroix는 바이커와 웨스턴을 절충시키면서도 여성적인 블랙 부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009년 S/S 시즌 Givenchy의 “Western Bondage”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Riccardo Tisci는 가죽의 챔스와 진, 타이트한 라이크라를 사용한 레깅스로 웨스턴 테마의 하드코어 패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나면서 미국적인 스타일의 레트로적인 리바이벌인 동시에 변형과 절충, 혼성을 통한 하이브리드 경향을 더욱 나타내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은 사적 고찰에서 나타난 웨스턴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경향의 특징에서 도출한 바,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 그리고 성적 소수 문화와의 차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

오늘날의 세계화는 범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띠는 서구화된 방식에서만 아니라,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지역주의를 강조하거나 지역주의와 동반되는 보편과 특수이 공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은 멕시코 및 스페니시 문화,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 그리고 미국적인 것을 변형하고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버나클러 디자인의 수공예적 기법과 일상적인 소재를 섞거나 이국적인 배경의 문양이나 아이템을 사용하고, 나아가 기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흡수하여 융합시킨다. 카우보이 부츠나 베스트에 에스닉한 문양을 사용하고 웨스턴 셔츠에 멕시코 영향의 파이핑과 선인장 문양, 꽃 문양의 자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림 1〉은 이탈리아적인 감성의 실크와 로테오 풍의 웨스턴 감각을 혼합, 변용한 것이며, 〈그림 2〉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수공예적 기법과 미국적인 진을 코디한 경우이다. 2009년 들어 Etro에서는 남미풍



〈그림 1〉 92 A/W.
Gianni Versace.



〈그림 2〉 2000 S/S.
Anna Sui.



〈그림 3〉 2009 S/S.
Etro.



〈그림 4〉 05 S/S.
Anna Sui.

38)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348>

39)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402&conn_seq=002

의 감각을 웨스턴 스타일에 혼합하고 구슬과 모자의 수공예와 광택 있는 소재를 매치하였다(그림 3). Anna Sui는 웨스턴 셔츠의 요크선과 화살무늬 스티치 장식, 꽃 모티브의 자수에 아메리칸 인디언 풍의 깃털과 장식, 헤드밴드로서의 밴대너로 지역문화가 융합된 웨스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그림 4).

2)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은 레트로적인 낭만적 감성에서 웨스턴 스타일의 도입, 또는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의 혼성을 의미한다. 셔츠와 베스트, 데님 등 노동복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을 실용적으로 도입하거나,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에 민속적 요소로서의 혼성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시도한다.

<그림 5>는 스페케티 웨스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그런지 느낌의 오버롤 데님에 셔츠와 베스트, 흰 모자를 매치하여 노동복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을 빈티지 느낌으로 나타낸 것이다. 액세서리로서 끈 목걸이와 미국 원주민의 비즈 장식의 샌들을 코디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의 혼성은 <그림 6>처럼 펑크(Funk) 스타일의 글래머러스한 감각으로 표현하거나, <그림 7>처럼 바이커 스타일의 혼합된 카우보이 부츠⁴⁰⁾로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성적 소수자 스타일의 차용

2005년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은 1960년대 미국 중서부에서 만난 두 카우보이들의 동성애를 다룬 멜로드라마로서, 금기를 깨고 서부 영화가 남성성의 과시로만 이해되지 않는 게이 웨스턴 영화의 예가 되었다⁴¹⁾. 이에 카우보이들에 관련되던 웨스턴 스타일도 성적 소수 문화와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적으로만 여겨지던 웨스턴 스타일은 드랙 스타일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스타일에 차용되어 유희적으로나 퀴어적으로 나타난다. 라인스톤으로 장식된 챔스와 페티시한 코르셋, 글리터 소재의 웨스턴 수트는 그 예가 된다. 로데오 의상과 쇼 의상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에 연관되는 키치하고 과시적인 형태이다.

<그림 8>은 드랙 퍼포머인 RaPaul이 입은 로데오 풍의 챔스와 코르셋으로서, 화려한 모조 보석과 스팅글, 금속 장식으로 글래머러스한 양성적 매력을 보여주며, <그림 9>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남성의 퀴어적인 매력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소수 문화를 차용한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낸다. 최근의 <그림 10>은 웨스턴 테마를 하드코어로 해석한 Riccardo Tisci의 Givenchy 컬렉션으로서, 본디지 스타일의 달라붙는 레깅스에 웨스턴 스타일의 문양과 스티치가 장식되고, 안에 받쳐 입은 탑은 크리스크로스된 노출이 심한 형태이다⁴²⁾. 이에 무대의의상의 가장성과 양성성, 하위문화성, 차용성을 미적 특성으로 하는 성적 소



<그림 5> 06 S/S. <그림 6> 03 F/W. <그림 7> 07 A/W. <그림 8> 92 S/S. <그림 9> 93 S/S. <그림 10> 09 S/S.
Dsquared². Baby Phat. Lacroix. Thierry Mugler. Jean Paul Gaultier. Givenchy.

40) www.style.com

41) 한창호, “순수로의 불가능한 회귀, <브로크백 마운틴>,” 시네 21, 2006년 3월 22일. <http://movie.daum.net/moviedetailArticleRead.do?movieId=41247&articleId=374369&type=magazine>

42) www.style.com

〈표 3〉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의 미적 특성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의미	패션 특성	관련 미적 특성
지역문화의 변용과 융합	멕시코 및 스페니시 문화,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 그리고 미국적인 것을 변형하고 융합	수공예적 기법과 일상적인 소재 혼합, 이국적인 문양이나 아이템 사용, 기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융합	이국성, 미국문화성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	웨스턴 스타일의 레트로적 도입, 또는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의 혼성	노동복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을 실용적으로 도입, 또는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 혼성	하위문화성
성적 소수자 스타일의 차용	드랙 스타일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스타일에 차용되어 유희적으로나 퀴어적으로 표현	라인스톤으로 장식된 챗스와 페티시한 코르셋, 글리터 소재의 웨스턴 수트	가장성, 양성성, 차용성, 하위문화성

수 문화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의 미적 특성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IV.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고찰하고,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웨스턴 스타일은 아메리카 서부의 카우보이와 개척자들이 착용한 복식을 총칭하며, 스탠튼 모자와 카우보이 부츠, 데님 진의 세 아이템의 웨스턴 웨어를 바탕으로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이콘으로서의 카우보이가 형성되면서 멕시코 및 스페니시의 영향을 받았으며,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초 영화 속 카우보이 스타일이 화려한 로데오 복장 및 데님 오버롤로 이미지화되었고,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에는 사실적인 카우보이 스타일로 커프스의 데님에 베스트, 평범한 셔츠, 밴대너, 모자로 구성되었다. 1950년대에는 웨스턴 뮤직과 함께 화려하고 환상적인 라인스톤 카우보이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풍이 가미된 거칠고 지저분한 카우보이 룩으로 변화하게 된다. 웨스턴 스타일은 미국의 용광로적인 성격을 체현하며, 스페니시, 아메리칸 인디언, 멕시코, 동유럽 등 많은 문화를 변형하고 현재 감각에 맞게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웨스턴 스타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은 사적 고찰에서 나타난 웨스턴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경향의 특징에서 도출한 바,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 그리고 성적 소수 문화와의 차용으로 나타났다.

지역 문화의 변용과 융합은 멕시코 및 스페니시 문화,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 그리고 미국적인 것을 변형하고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버나클러 디자인의 수공예적 기법과 일상적인 소재를 섞거나 이국적인 배경의 문양이나 아이템을 사용하고 나아가 기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흡수하여 융합시킨다. 카우보이 부츠나 베스트에 에스닉한 문양을 사용하고 웨스턴 셔츠에 멕시코 영향의 파이핑과 선인장 문양, 꽃 문양의 자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하위문화의 도입과 혼성은 레트로적인 낭만적 감성에서 웨스턴 스타일의 도입, 또는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과의 혼성을 의미한다. 셔츠와 베스트, 데님 등 노동복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을 실용적으로 도입하거나, 다른 하위문화 스타일에 민속적 요소로서의 혼성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시도한다.

남성적으로만 여겨지던 웨스턴 스타일은 드랙 스타일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스타일에 차용되어 유희적으로나 퀴어적으로 나타난다. 라인스톤으로 장식된 챗스와 페티시한 코르셋, 글리터 소재의 웨스턴 수트는 그 예가 된다. 로데오 의상과 쇼 의상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에 연관되는 키치하고 과시적인 형태이다.

웨스턴 스타일은 지배적인 트렌드는 아니지만 디자인 영감으로서 20세기 후반 주기적으로 주류 패션에 나타나며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후속 논문으로서 각 시기별 웨스턴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영화의상에서 또는 무대의상으로서의 웨스턴 스타일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란 (2004).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묘, 박혜원 (2001). “랄프로렌 디자인 브랜드에 표현된 아메리칸 스타일 연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5권.
- 송수원 (2008). “영국, 미국 패션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2).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윤 (2008).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한중일 전통 문화코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선 (1994).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준 (1997).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 20권.
-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복식* 51권 2호.
- 최호정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로벌, 구조적 하이브리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창호 (2006). “순수로의 불가능한 회귀, <브로크백 마운틴>.” *시네* 21 2006년 3월 22일.
- Callan, Georgina O'Hara (1998).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and Hudson.
- de la Haye, Amy and Cathie Dingwell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 George-Warren, Holly and Michelle Freedman (2001). *How the West was Worn*. NY: Harry N. Abrams, Inc.
- Hilfiger, Tommy (1999). *Rock Style: How Fashion Moves to Music*. NY: Universe.
- June, Jennifer (2007). *Cowboy Boots*. NY: Universe.
- Lipset, Seymour Martin (2006).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강정인, 문지영, 하상복 역. 서울: 후마니타스.
- McDowell, Colin (1997).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en*. London: Thames and Hudson.
- Pattison, Angela and Nigel Cawthorne (1997). *A Century of Shoes: Icons of Style in the 20th Century*. Edison, NJ: Chartwell.
- Polhemus, Ted (1994). *Street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NY: Thames and Hudson.
- Schmid, Beate and Ingrid Loschek (2001). *Klassiker der Mode(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역. 서울: 예경.
- Sims, Joshua (1999). *Rock Fashion*. London: Omnibus Press.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style.com>